

#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 3%이하 가능

### 은행거래 우대혜택 가족실적 합산·주거래 고객제도·전자통장 이용·고객에게 맞는 통장 변경 등

은행에 예·적금을 든 고객이라면 이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가 가족과 거래실적을 합산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가족 모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은행거래 우대혜택을 22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예·적금 담보대출과 가족실적 합산, 주거래 고객제도, 전자통장 이용, 고객에게 맞는 통장 변경 등이다.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에 1.0%~1.5%를 더한 수준으로 평균 2.78%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3%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높아도 최소한 3.4%의 이자가 붙고 퇴직자는 7~8%대에 달한다.

더욱이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기간 설정이 자유롭고 기타 비용 등이 들지 않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장 구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과 거래 실적을 합산하는 것도



**동전쌓기 게임** 22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 & 방과후학교 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한국조폐공사 부스에서 동전쌓기 게임을 하고 있다.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교육기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136개 기관을 비롯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우수 운영 학교, 교육지원청 등 34개 학교·기관 등이 참여해 전시·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움이 된다.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해 가족 모두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거래실적 가족합산

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해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별로 가족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한 고객도 혜택을 받는다.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뿐 아니라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도 누릴 수 있다.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밖에 직업, 연령 등에 따른 입출금 통장 상품에 가입하면 수수료 면제 및 환율 및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뉴스

## 은행 8월 '주담대 금리' 상승 전환

### 분할상환식 평균금리 0.02~0.1%p 올라... 농협은 하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뒤 한동안 내림세를 이어오던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전환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데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도 오른 영향이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은행에서 지난달 취급한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는 0.02~0.1%포인트 올랐다.

한달 사이 신한은행은 2.66%에서 2.75로 0.09%포인트 상승했고 KB국민은행도 2.76%에서 2.80%로 0.04%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은 2.80%에서 0.05% 오른 2.85%, KEB하나은행은 0.1%포인트 상승한 2.71%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은 2.73%에서 0.02%포인트 올랐다.

6대 주요은행 중 NH농협은행만

2.60%에서 2.59%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가산금리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은행은 기업은행으로서 1.09%에서 1.27%로 0.18%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의 기준금리는 1.64%에서 1.48%로 하락했다.

우리은행도 가산금리를 0.12%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0.09%포인트, 국민은행은 0.08%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PIX)의 하락세는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 6월(0.10%포인트)과 7월(1.12%포인트)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그리면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뉴스

## 저축은행 광고비 3년간 3배 급증

저축은행의 광고비와 광고건수가 지난 3년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부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의 광고선전비는 2012년 381억원에서 2015년 1159억으로 3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집행된 광고비가 557억원에 달한다.

TV광고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2년 13만 2824건에서 2015년 43만688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대부업법을 개정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TV광고를 10시 이전 등에는 제한했지만 제2금융권의 수요를 꺾지 못했다.

특히 SBI, OK, HK, JT전애, 웰컴 등 자본력이 강한 상위 5곳이 98%를 점유하면서 TV광고를 독식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

## 기업 매출액 9분기 연속 감소... 수익성은 개선

### 2분기 매출액 증가율 -1.9%... 제조업·대기업 부진 "매출액영업이익률 6.3%... 2011년 1분기 이후 최대"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했음에도 수익성은 개선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업 30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9%로 전년동기(-4.3%)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제조업과 대기업의 부진에 전체 기업 매출액은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플러스 성장을 보였던 중소기업의 매출액도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6.3%에서 올 2분기 -2.0%로 감

소폭이 줄었다.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5.7%에서 -2.3%로 감소했다. 제조 대기업의 경우에는 -3.0%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7.0)보다도 감소폭이 줄었다.

가격 요인을 많이 받는 석유화학(-6.7%)과 금속제품(-2.0%) 등에서 하락폭이 컸다.

중소기업 역시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동기 2.0%에서 -0.2% 마이너스 전환했다.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3%로 2011년 1분기(6.3%)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 5.3%에서 5.6%로 상승했다.

매출 하락에도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진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 및 유가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상승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과 주택시장 경기 호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로 인해 제조업(6.5%→7.1%)과 대기업(5.9%→6.3%) 모두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 중소기업도 5.4%에서 6.0%로 올랐다.

최대액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기업들의 매출이 줄었음에도 수익성이 좋아진 것은 환율이나 유가 등 외부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자본확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539.69%로 전년(482.23%)보다 상승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뉴스

## 애플, 영국 슈퍼카 업체 맥라렌 인수 추진 중

미국의 애플이 영국의 슈퍼카 업체인 맥라렌 테크놀로지 그룹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을 잇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부심해온 애플은 그동안 '타이탄'으로 불리는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운용해 왔으나, 자동차 업체 인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영국의 맥라렌 테크놀로지 그룹을 사들이거나 전략적 투자를 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에 1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10억(약 1조4367억원)~15억 파운드(2조1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라렌 테크놀로지 그룹은 ▲자동차 엔지니어링 ▲내장 컴퓨터 시스템 ▲탄소 섬유·알루미늄을 비롯한 자동차 새시 프레임 소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이 그룹의 슈퍼카 판매대수는 1654대, 매출은 4억5000만 파운드(약 6465억원)에 달했지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앞서 지난 5월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에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를 투자하기로 하자 다음 성장 동력이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신문은 "애플의 맥라렌 인수 움직임은 이 아이폰 제조사가 자동차 산업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맥라렌 인수는"이 회사의 배일에 썩인 자동차 프로젝트를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

프로젝트'로 알려진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7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자동차 랩'을 이끌 책임자로 애플에서 쫓겨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밥 맨스필드 특별고문을 전직배치해 주목을 끌었다.

자동차 랩은 ▲자율주행용 돕는 인공지능(AD) 기술 ▲전기자동차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로 알려졌다. 애플은 그동안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모터스에서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을 지낸 크리스 포트를 영입한 데 이어, 스마트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담당하는 인공 지능 전문가들을 채용해 이 랩에 배치해 왔다.

애플이 앞서 지난 5월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에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를 투자하기로 하자 다음 성장 동력이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신문은 "애플의 맥라렌 인수 움직임은 이 아이폰 제조사가 자동차 산업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맥라렌 인수는"이 회사의 배일에 썩인 자동차 프로젝트를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